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영국의 극작가이자 소설가, 비평가인 버나드 쇼. 살아생전 리얼리즘에 바탕을 둔 독특한 희곡을 선보이면서도 유머와 위트 넘치는 작품 세계를 구사했던 버나드 쇼는 죽어서도 촌철살인과 같은 묘비명을 남기며 전 세계인의 가슴에 아직도 살아있다.

소설가 이기호는 비슷한 제목을 따 《갈팡질팡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라는 소설을 선보이지 않았던가. 소설가 이기호가 버나드 쇼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찌되었건 버나드 쇼의 묘비명은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의 현실을, 더하고 빼지 않아도 고스란히 보여주는 명문장임에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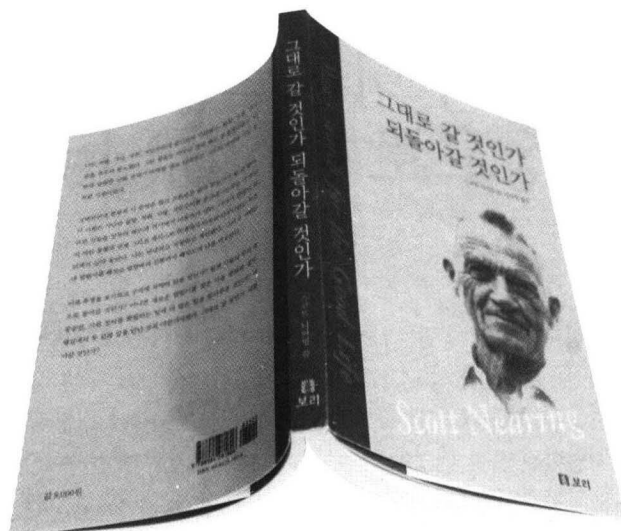
모르긴 해도, 이기호가 버나드 쇼의 묘비명을 대할 때마다 ‘갈팡질팡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를 떠올린다고 하면, 기자는 버나드 쇼의 묘비명을 대할 때마다 스코트 니어링의 《그대로 갈 것인가 되돌아갈 것인가》를 떠올린다.

현학의 허세가 아니라 실제로 스코트 니어링의 이 책은 우물쭈물하는, 혹은 갈팡질팡하는 현대인들의 자화상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하키야 말만 조금 고상하게 표현했을 뿐, ‘그대로 갈 것인가 되돌아갈 것인가’를 풀어 이야기하면 ‘우물쭈물하다가’ 혹은 ‘갈팡질팡하다가’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 것인가.

물론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 그리고 이기호의 소설이 지향하는 바가 뚜렷하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무언가를 일깨우고자 했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자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스코트 니어링의 《그대로 갈 것인가 되돌아갈 것인가》이다. 그 중에서도 ‘되돌아갈 것인가’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인류가 추구했던 이상향, 스코트 니어링의 표현을 빌자면 ‘조화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자의 어눌한 글보다 니어링이 직접 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자.

“조화로운 삶을 살려는 이들은 이론과 실천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힘쓴다. 머리로는 해보자 하면서 행동은 안 따르는 차선책에 만족하지 않는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사람이 헛갈리게 된다. 조화로운 삶을 찾는 이들은 온전함을 좇으므로 오로지 최선책에만 관심이 있다. 이들은 온전함만이 아니라 생각과 말과 행동의 통일을 꾀한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통일된다는 것은 슬기롭다는 뜻이며 마음 밑바탕에 평화와 고요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조화로운 삶을 살려는 사람들 중에도 이론과 실천이 따로 노는, 허다한 증인들이 삶으로 증명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니어링의 말처럼 “말과 행동



이 다르면 사람이 헛갈린다”고 하는데, 현대인들은 헛갈리지도 않고 말과 다른 행동, 행동과 다른 말들을 무수하게 쏟아내고 있다. 니어링 역시 이 점을 간과하지는 않는다.

“조화로운 삶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서도 탐욕, 경쟁, 싸움, 부와 권력만을 바라보고 가다 보면 길이 조금씩 바뀔 수 있다. 이 어려운 길 어디에서건 조화로운 삶은 휘방꾼 때문에 사라질 수 있다.”

그 휘방꾼을 니어링은 종종 ‘환경의 거미줄’이라고 표현하는데 질서, 아름다움, 정의 행복을 드높이는 임무를 지닌 이들은 언제나 환경의 거미줄에 맞닥뜨린다고 말한다. 그러나 결정적인 한마디, “조화로운 삶을 찾는 이들은 오히려 환경의 거미줄에서 조화로운 삶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화로운 삶을 살고자 이론을 다지지만 현실의 벽이 높아 뛰어넘지 못한다고 핑계하는 이들에게 니어링은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자연에서는 균형을, 사회에서는 흠잡을 데 없는 조화를 이루고 가꾸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균형 잡힌 자연 환경과 온전하고 건전한 사회 환경을 일구지 못하면 이웃들과 함께 이루어 내려는 조화로운 삶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니어링은 문명을 곧 사회적 자살 행위로 규정한다. 문명의 이기를 최대한 누리고 사는 우리에게 문명이 사회적 자살 행위라니..., 그렇다면 니어링의 말을 조곤조곤 따라가 보자. “문명은 팽창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팽창은 호전성을 가지고 있어 경제, 군사 면에서 충돌을 일으킨다. 이어지는 전쟁들이 전쟁 제초기가 되어 정부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정부를 앞세워 군사 긴장을 불러일으킨다. 경쟁하는 군국주의는 끝내 스스로 멸망하고 만다. 따라서 결론은 이렇다. 문명은 사회적 자살 행

위이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은 그로서는, 전쟁의 폐해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그로서는 당연하게 내릴 수밖에 없는 귀결인 셈이다. 결국 문명으로 이르는 길은 행복과 축복이 아니라 파괴와 죽음으로 뚫린 길이다.

니어링은 실천적인 사람이다. 아동 노동을 착취하는 것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다가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해직되었다거나, 제국주의 국가들이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에 반대하다가 톨레도 대학에서 해직되어서만은 아니다.

그는 헬렌 니어링과 함께 버먼트와 메인에서 평생을 조화로운 삶을 위해 작은 실천의 삶을 살았다. 부부의 손길만으로 자신들의 보급자리인 돌집을 지었고, 손수 기른 채소 등으로만 양식을 삼았다. 생각은 지구적으로 하되, 행동을 지역에 기반을 두고 실천적인 삶을 살았다.

그 원천은 무엇이었을까. 니어링의 말이다.

“나’는, 게으르고 부산하고 무관심하며 경쟁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협력하는 욕망들 속에서 평정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다. 게으르고 부산하고 무관심한 나를 일으켜 세우고, 경쟁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협력하는 욕망들 속에서 평정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조화로운 삶인 것이다. 이론과 실천이 때로는 따로 논들 어떠랴. 조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만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다면, 언젠가 품 나는 정도는 아니어도 조화로운 삶의 언저리에는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는가. *******

정동석 기자